

현대사회에 나타난 출근복 자율성에 관한 연구

김장현*, 이유림**

*디자인 팩토리

**화성의과학대학교 뷰티아트케어학과

e-mail:rim@hsmu.ac.kr

A Study on the Autonomy of Office Looks in Modern Society

Jang-Hyeon Kim*, Yu-Rim Lee**

*Design Factory

**Dept. of beauty art care,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최근 5년간 현대사회에 나타난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감성적 경향 탐색 및 대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병행한 후,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출근복의 자율성이 업무의 능률 증진 및 자율적 선택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출근복의 허용 범위와 선택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경우,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통한 업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경우, 자기중심적인 의복의 착용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복문화가 소실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셋째,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감성적 경향 및 대학생들의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함의점은 개인적인 자율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작은 사회라고 명명되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자유에 따르는 책임 의식을 인지하고, 자유와 격식의 합리적 절충을 통한 패션을 추구해야함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개념 및 출근복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감성적 경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셋째, 대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응답조사를 수행한다. 넷째, 앞서 진행한 감성어 분석 및 서술 응답을 토대로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조명되는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키워드를 Sometrend를 활용하여 고찰해본 결과, ‘효율적, 도움, 자유로움, 편하다’의 긍정적인 키워드가 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키워드는 55%로, ‘제한에 걸리다, 고민, 스트레스, 귀찮다, 부담, 비싸다’로

1. 서론

오늘날 스타트업 기업과 IT기업을 중심으로 출근복에 자율성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출근복의 자율성은 과거 권위적인 복장 코드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하나의 자유로운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출근복의 자율성은 유연한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위계질서의 와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소속감의 결여 등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조명되는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감성적 경향 파악 및 대학생들이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올바른 출근복 문화의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타났다. 이 같은 키워드로 출근복의 자율성과 관련된 감성적 경향을 살펴보았을 시, 출근복의 자율성이 업무의 능률 증진 및 자율적 선택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이면에 출근복의 허용 범위와 선택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내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서술 응답을 수행해본 결과, 80명의 학생이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명의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세대 간의 간극 해소, 시간의 단축, 에너지 절감, 회사에 대한 자부심 상승 등의 여러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립을 통한 업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으로 직업의 전문성 저하, 조직 간의 위화감 조성, 업무의 분위기 저해, 소속감 결여, 경제적 부담 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도출된 견해들로 자기중심적인 의복의 착용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복문화가 소실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출근복의 자율성과 관련된 감성어 분석과 대학생들의 출근복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착용자 측면에서 개인적인 자율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작은 사회라고 명명되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출근복의 자율성이 갖는 책임 의식을 인지하고, 자유와 격식의 합리적 절충을 통한 패션을 추구해야함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오늘날 출근복의 자율성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정체된 수직적 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출근복장에 내제되어있는 위계적 표상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개개인의 정체성에서 표출되는 다양성의 수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출근복의 자율성이 하나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복에 대한 자유와 보편적인 사회적 규제의 절충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하는 바이다.